

행정구역 연혁 및 명칭유래

□ 시

○ 연 혁

년 대	연 혁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년, 김수로왕 가락국(금관가야) 창건 ○ 532년, 신라에 합병, 금관군으로 됨 ○ 756년, 김해소경으로 됨
고려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1년, 김해부로 고침
조선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95년, 김해군이 됨
일제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1. 11. 1, 김해면이 김해읍으로 승격
대한민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8. 2. 15, 대저읍, 명지면, 가락면 난동지구가 부산시로 편입 ○ 1981. 7. 1, 김해읍이 김해시로 승격 ○ 1989. 1. 1, 가락면, 녹산면이 부산시로 편입 ○ 1995. 5. 10, 김해시·군이 통합하여 김해시로 됨

○ 명칭유래

- <금바다>란 뜻의 “金海”라는 이름이 처음 불리우게 된 것은 500년간 번창하던 가락국이 신라에 합병된 후 정치적, 군사적으로 요충지였던 이곳에 A.D. 756년 신라의 작은 수도격인 “김해소경”이 설치되면서 부터임
- 1895년에는 김해군으로 바뀌었고, 1981. 7. 1 김해군 김해읍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김해군과 김해시가 분리되었음
- 그후 1995. 5. 10 양시·군이 14년만에 다시 통합되어 도·농 복합 형태의 김해시가 오늘에 이르고 있음

□ 읍면동

행정구역	연혁 및 명칭 유래
<p>進永邑 (진영읍)</p>	<p>○ 연 혁 - 1928. 4. 1, 하계면(下界面)을 진영면(進永面)으로 개칭 - 1942. 10. 1, 진영읍으로 승격</p> <p>○ 명칭유래 - 풍수지리설에 의해 군사(軍士)들 진영(陣營)의 형국이며, 금병산(錦屏山: 金屏山)을 상제봉조형(上帝奉詔形)으로 보고, 여래리의 동쪽을 장군대좌형(將軍對坐形)의 명당으로 보아 주거지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진영읍으로 불림</p>
<p>牛洞里 (우동리)</p>	<p>○소가 누운 형국의 와우산(臥牛山) 아래에 마을이 형성되어 예부터 소골(숫골), 소동이라 부르다가 우동(牛洞)이 되었음.</p>
<p>荷溪里 (하계리)</p>	<p>○하계(荷溪)란 지명의 유래는 명확치 않으나 연꽃과 맑은 계곡이 무관하지 않음.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마을의 모양이 계곡에 피어난 연꽃이란 뜻을 담음.</p>
<p>芳洞里 (방동리)</p>	<p>○1914. 3. 1 방동마을과 동산마을을 합하여 방동리가 됨</p>
<p>畝山里 (사산리)</p>	<p>○집처럼 생긴 산의 모양이라 사산(畝山: 집사, 뒤편)이라 부름</p>
<p>佐昆里 (좌곤리)</p>	<p>○임진왜란 때 정병산(精兵山 : 봉림산)에 좌군(佐軍 : 左軍)이 주둔하였기에 생긴 이름이라고 하지만 거리관계를 보아 믿기 어렵고 풍수지리설에는 쥐가 엮드린 모양의 복서형(伏鼠形)의 명당이기 때문에 좌곤(子坤)이 좌곤(佐昆)으로 변했다 함.</p>
<p>進永里 (진영리)</p>	<p>○진영읍의 주산(主山)인 금병산 아래 풍수지리설의 진영형국(陣營形局)으로 된 마을</p>
<p>餘萊里 (여래리)</p>	<p>○1914. 3. 1 대창, 공정마을을 합하여 여래리가 됨</p>
<p>本山里 (본산리)</p>	<p>○예부터 명산, 영산(靈山)으로 불리어 온 자암산(子庵山 : 현재 烽火山) 아래에 형성되었다하여 유래</p>
<p>新龍里 (신용리)</p>	<p>○1914, 3, 1 외룡과 양지마을을 합하여 신용리가 됨</p>
<p>雪倉里 (설창리)</p>	<p>○진영읍이 되기 전, 최초의 면(面) 중 하나였던 중북면(中北面)의 면소와 세곡창고인 설창(雪倉)이 있었던 것에서 유래</p>
<p>內龍里 (내룡리)</p>	<p>○1914. 3. 1 내룡리와 용담리를 합하여 내룡리가 됨. 마을이름에 용이 들어간 것은 지형이 용이 꿈틀거리는 형상이라고 붙여진 이름</p>
<p>竹谷里 (죽곡리)</p>	<p>○1914. 3. 1 울리마을과 유목마을 합하여 죽곡리가 됨. 죽곡(竹谷)은 대나무가 많았던 대실마을에서 유래</p>
<p>蟻田里 (의전리)</p>	<p>○의전(蟻田)이란 명칭은 ‘개미밭’이란 말에서 생긴 것인데, 마을 뒤의 낮은 산언덕 ‘개미등’에서 연유하였음</p>

행정구역	연혁 및 명칭 유래
<p>長有面 (장유면)</p>	<p>○ 연 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시대에는 능동마을에 가락국 임금의 능이 있었다하여 향.소.부곡이라는 특수마을의 하나로 제을미향(濟乙彌鄉)이라 부르기도 하였으며, 장유촌, 유하촌으로도 불렀다고 함. - 조선중기 때는 유등야면으로 고치고, 순조 10년(1810)에는 유하면이 되었다가 고종 16년(1879) 다시 유등야면으로 돌아갔다가 고종22년(1885)에 장유면으로 개칭되었다. - 고종25년(1888)에 장유면과 수남면으로 나누었다가 1914년 일제때 장유면과 수남면이 다시 합병되어 장유면이 되었다. <p>○ 명칭유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유는 가락국(서기42년~530년)때 수로왕의 처남인 허보옥(許寶玉)이 장유산에서 절을 세우고 입산하시어, 속세로 돌아가지 아니하므로 허보옥을 유화상(長遊和尚)이라고 하였으며, 장유는 여기서 연유한 지명이라고 한다
<p>柳下里 (유하리)</p>	<p>○ 유등이 또는 유등야라 불리어 이것이 명칭이 되기도 하였으며, 1914년에 상후포 하후포 하손과 계리일부를 병합하였다.</p>
<p>內德里 (내덕리)</p>	<p>○ 옛날 용덕리였는데 철종 3년 덕촌리라 부르다가 1914년 유하리의 일부를 병합하고 내덕리가 되었다.</p>
<p>釜谷里 (부곡리)</p>	<p>○ 준종때 지리지에 나오는 부양곡리이며 그 뒤 부곡리로 고쳐 1914년 냉정리를 병합하였다.</p>
<p>茂溪里 (무계리)</p>	<p>○ 대청천과 핏내등 여러 개울이 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1914년 광석암을 합하여 무계리가 되었다</p>
<p>新文里 (신문리)</p>	<p>○ 신문진이 있었기 때문에 신문리였으며, 신문장도 이곳에 있었다 신문진이 웅천현으로 이설되어 간 뒤에 신문으로 개칭된 듯하다. 1914년 봉릴리 용산리 및 삼문리가 각마을을 병합하여 신문리가 되었다.</p>
<p>三文里 (삼문리)</p>	<p>○ 중봉사의 산문이 있었다고 사문리였으며, 삼은(三隱),삼은(三恩), 사문(斯文)리의 별칭도 있었다.</p>
<p>大淸里 (대청리)</p>	<p>○ 불모산.용지봉.추월산 아래에 있어 여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맑기 때문에 대청천.대청리라고 한다.</p>
<p>官洞里 (관동리)</p>	<p>○ 적향역의 역관이 있었던 곳으로 관동이라 부르며 화촌리와 신문리 일부를 병합하였다.</p>
<p>栗下里 (울하리)</p>	<p>○ 옛날 김해부에서 적향역을 지나 웅천현으로 넘어가는 울천현의 고개아래에 있는 마을이므로 울하라 하였다.</p>
<p>長有里 (장유리)</p>	<p>○ 옛날 장유촌으로서 장유면의 이름이 비롯되는 마을이다. 태정산의 서쪽기슭에 있다.</p>
<p>應達里 (응달리)</p>	<p>○ 태정산의 응달쪽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응달이라고 한 것이다. 1914년 태정리와 용계리를 병합하였다.</p>
<p>水佳里 (수가리)</p>	<p>○ 조만강가에 길게 늘어져 있는 마을로서 背山臨水의 동네라 옛날에는 水安里라고 했으며, 1914년 佳洞을 병합하여 수가리가 되었다.</p>

행정구역	연혁 및 명칭 유래
<p>酒村面 (주촌면)</p>	<p>○ 연 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05년 이전 : 住村 또는 酒村으로 칭함 - 1905 : 주동, 주서 2개 면으로 분리 - 1910 : 2개면을 합병, 주촌면으로 개칭 <p>○ 명칭유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명의 유래에 대해선 논란이 많았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주지봉(住持峯) 또는 주주봉(酒主峯) 아래의 마을, 혹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는 과거에 번성한 포구였던 선지리의 배가 정박하는 곳이었던 "주촌지(酒村池)"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다.
<p>仙池里 (선지리)</p>	<p>○수백년 전까지는 번성한 포구였다고 한다. 선지사 출토 명문기와편에 새겨진 "仙地寺"란 글을 볼 때 선지란 지명은 천년 이상된 아주 오래된 지명임을 알 수 있다.</p>
<p>元支里 (원지리)</p>	<p>○元支里는 호구총수에 元枝里라는 표기로 등장한다. 원지리는 元枝에 리를 붙여 말단행정구역단위의 하나라는 사실을 표기한 것으로 “중심이 되는 곳에 형성된 마을”을 뜻하겠다.</p>
<p>德岩里 (덕암리)</p>	<p>○덕암이라는 이름은 임진왜란때 흥해 최씨 형제가 피난와 살면서 후진을 가르쳤다고 하며 뒷산의 바위를 형제바위(덕바위), 동네를 덕암촌으로 부르면서 유래했다고 한다.</p>
<p>泉谷里 (천곡리)</p>	<p>○천곡은 뒤산에 샘이 많다고 해서 새미실 즉 천곡이다.</p>
<p>內三里 (내삼리)</p>	<p>○내삼 마을은 옛날에 삼내(三川)라고 했으며,</p>
<p>良洞里 (양동리)</p>	<p>○양동리는 원래 사양곡 또는 노래실이라고 하여 가곡리였는데 조선후기 철종 때 양동(어진마을)으로 고쳤다고 한다.</p>
<p>望德里 (망덕리)</p>	<p>○처음엔 신답리였다가 1914년 신답, 신기를 합하여 망덕리가 되었다.</p>
<p>農所里 (농소리)</p>	<p>○옛날 농사짓는 농소가 있었다고 농소리이며 농소란 옛날 세력가들의 농장이다</p>

행정구역	연혁 및 명칭 유래
<p>進禮面 (진례면)</p>	<p>○ 연 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년 : 가락국건국(김수로왕이 왕자 한 사람을 進禮君으로 봉함) - 532년 : 신라에 합병 - 1469년 : 청내면(晴川面, 조선성종) - 1894년 : 진례면과 울리면으로 지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례면(청천, 시례, 송정, 초전, 신안) ※ 울리면(산본, 신월, 송현, 담안, 고모) - 1914년 : 진례면(진례면과 울리면을 통합) <p>○ 명칭유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락국때 수로왕이 왕자를 진례성주(進禮城主)로 봉했다고 하고(三子許明) 통일신라말에는 김인광(金仁匡)이 진례성 제군사(諸軍事)가 되어 이곳을 지켰다고 함. 예종(睿宗)때의 경상도지리지(1469)에 의하면 부서 진례촌(府西 進禮村)으로 나와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청천면(菁川面) 으로서 청내(晴內)라 속칭하였음. 1894년 갑오경장때 진례면 5리와 울리면(栗里) 9리로 나누었다가 1914년에 중북(中北)면의 의전리 일부와 죽곡리 일부를 합병하여 진례면이 되었음.
<p>晴川里 (청천리)</p>	<p>○ 열두 골짜기의 물이 모두 모여 화포천으로 흘러가는 곳.</p>
<p>詩禮里 (시례리)</p>	<p>○ 논어의 「興於詩立於禮에서 나온 이름, 시루 모양의 봉우리가 있기 때문에 시루골이 되고 시례골로 바뀌었다는 설.</p>
<p>松亭里 (송정리)</p>	<p>○ 白松亭이라고 하며, 옛날에 소나무 숲이 우거졌다.</p>
<p>棗¹⁾田里 (조전리)</p>	<p>○ 옛날에 대추나무가 많아 대추밭(棗田)이라 불림.</p>
<p>新安里 (신안리)</p>	<p>○ 특별한 명칭유래 없음.</p>
<p>山本里 (산본리)</p>	<p>○ 龍池峰아래에 있기 때문에 山아래 마을이라 하여 山本.</p>
<p>新月里 (신월리)</p>	<p>○ 마을앞의 야트막한 언덕바지가 초생달처럼 생긴데서 유래함. 옛날에는 神堂이라 불림</p>
<p>松峴里 (송현리)</p>	<p>○ 솔티(松峴)라는 고개밑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송현.</p>
<p>淡安里 (담안리)</p>	<p>○ 지형이 담으로 둘러 쌓인 듯하다고 담안(牆內).</p>
<p>古慕里 (고모리)</p>	<p>○ 顧母谷(古母谷:고모실)이라고 하여 마치 송아지가 어미소를 그리워하여 되돌아보는 형국이라고 해서 생긴 이름.</p>

1) '조'자지만 초로 표기함

행정구역	연혁 및 명칭 유래
翰林面 (한림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09 : 화포천 경계 북쪽은 상북면, 남쪽은 하북면 - 1914 : 이북면 개칭 11개리 32개 마을 - 1920 : 이북면 명동리 낙산마을 면청사 이전 - 1964 : 이북면 장방리 한림마을 1,2,3구 분동 - 1968 : 이북면 장방리 333-5번지 명청사 신축 이전 - 1973 : 이북면 용덕리 상낙원 덕촌마을 분동 - 1982 : 이북면 시산리 시호 1,2구 분동 - 1983 : 생림면 6개마을 편입 - 1987 : 이북면을 한림면으로 면명 개칭 - 1992 : 한림면 신천리 망천마을 1,2구 분동 - 2005 : 한림면 한림1구 청원마을 분동, 한림3구 신봉마을 분동 ○ 명칭유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림 학사 김계희가 살았기 때문에 마을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1905년 10월 마산선 철도 (현재 경전선)가 개통되고 이곳에 역을 두어 일본인들이 유림정으로 고쳤으나 해방 후 역명을 다시 한림정으로 고쳤다.
明洞里 (명동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황(鳳凰)이 살았다는 서봉산이 있으며 봉황이 운다고 명동(鳴洞)이라 불렀는데, 뒤에 울명(鳴)이 밝을명(明)으로 되어 명동(明洞)이 되었다.
退來里 (퇴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래리의 지명은 신의와 지조로 살아간 충신의 삶에서 생겨났다. 단종 3년(서기1445년)에 서강(西岡) 김계금이 벼슬을 버리고 이 곳에 내려와 살았고 참판 김계희의 호도 되었으며 인조와 효종 때 회령부사를 지낸 김영준도 최관후 이곳에 살면서 퇴래촌(退來村)이라 했다하여 퇴래가 되었다.
屏洞里 (병동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동리(屏洞里)란 이름은 왕이 병풍을 하사 하였기 때문에 생긴 이름으로 어병동(御屏洞)이었다. 하북면이 상북면과 합쳐 이북면이 되면서 소업, 범곡, 가달마을을 합치면서 병동리가 되었다.
新泉里 (신천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천이란 지명은 신천초등학교 아래쪽에 맑고 깨끗하며 물맛이 좋은 풍부한 수량의 우물이 있어 부르게 되었다.
龍德里 (용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덕리는 옛 하북면으로 신천리의 크고 작은 산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천(川)이 (龍)처럼 생겼는데 그 천을 끼고 생겨난 마을이란 뜻이다.
安谷里 (안곡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짜기 안쪽에 위치했다는 뜻에서 안곡리라 부르게 되었다.
安下里 (안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하리는 홍수때마다 물이들어와 안명(安明)이란 이름이 지어졌고 후에 안하(安河)로 변하고 다시 안하(安下)가 되었다.
長芳里 (장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長은 중심에 있는 산, 들, 마을을 뜻하는 ‘만’을 표기하기 위한 차자이고, 芳은 마을을 뜻하는 우리말 ‘골’을 표기하기 위한 차자이다. 長芳은 우리말 만골을 뜻하는 한자어로 이 지역의 중심이 되는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 했다

행정구역	연혁 및 명칭 유래
匙山里 (시산리)	○시산이란 이름은 낙동강 제방을 쌓기전 낙동강 변에 자리 잡은 산이 술가락 모양처럼 생겼다하여 술피라 불렀는데 술은 순수한 우리말로 술가락이며 되는 산이다. 독특하고 아름다운 우리말이지만 한자가 들어와匙(술가락 시)山(퇴산)이 되었다.
佳洞里 (가동리)	○가동이란 지명은 낙동강변의 물속에 떠있는 독피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생겨난 이름이다. 낙동강 제방을 쌓기 전 가동 일대는 낙동강변의 우수지였으며 홍수시 독피를 제외한 주위는 물바다였다. 그리하여 그 독피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아름다운 가(佳)를 써 가동(佳洞)라 부르게 되었다
佳山里 (가산리)	○가산이란 지명도 낙동강변에 만들어진 작은 독피의 모습이 아름다워 붙여진 이름이다
金谷里 (김곡리)	○금곡마을의 우리말 이름은 '쇠실'이다. 옛날 철이 생산되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김곡리는 고려때부터 옛교통로로서 김곡역(金谷驛)이 있었다
生林面 (생림면)	○ 연 혁 - 1914년 지역분리로 생겨 9개리가 되었으며 하북면 용덕리 일부와 밀양군 삼랑리 일부가 병합 - 1982.4월 생림면 봉림리 642번지 면청사 신축 이전 - 1983.2.5 김곡리와 생림리의 장재마을이 이북면으로 이속되어 8개리가 되었음. ○ 명칭유래 - 조선후기 마현고개 북쪽은 이작. 그 아래쪽은 일작.
羅田里 (나전리)	○ 풍수설로 나화낙자형 또는 선녀나대하강전형의 명단 때문에 나밭이 되었다.
安養里 (안양리)	○1914년 창암, 신안, 선곡을 합하여 안양리가 되었다.
沙村里 (사촌리)	○ 사기점(포)이 있어서 사기밭 또는 사촌이라고 하였다.
鳳林里 (봉림리)	○ 뒷산에 봉황이 숲으로 내려우는 모양의 명당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生林里 (생림리)	○ “동쪽에 있는 숲 부근에 형성된 마을”을 뜻하는 것으로 지금은 한림면이 된 김곡리의 동쪽편에 위치하기 때문에 생겨난 지명으로 생각됨
馬沙里 (마사리)	○ 낙동강가에 있어 옛날에는 마휴촌이라 불렀는데 나루터에 말이 쉬어 가는 곳이었다고 함
生鐵里 (생철리)	○ 김해지리지에 보면 생철리에 대해 “고려말기까지 철이 많이 생산되었다고 하며, 아직도 시냇가에 쇠찌꺼기가 나타난다. 일명 쇠뿌리라고도 한다”고 하였다. 이 지역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철이 생산되어 생철리라는 이름이 생겨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하지만 생철리는 “생제울리”에서 파생된 지명으로 생각된다.

행정구역	연혁 및 명칭 유래
<p>上東面 (상동면)</p>	<p>○ 연 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해부의 동편에 있는 면이며, 20개리가 있었던 것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현재에는 6개리 18개마을로 구성되어 있음 <p>○ 명칭유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동이 행정구역 명칭으로 등장한 것은 고려시대(광종22년, 971년)이며, 세종실록지리지에 감물야촌(甘勿也村)으로 나오며 고려 때에는 감물야향(甘勿也鄉)으로서 조정에 감물을 진상하였다는 기록이 있음. - 감물야향(甘勿也鄉), 감물야촌(甘勿也村)명칭은 달무리 마을의 뜻으로 추정되며, 上東이란 명칭은 金海府의 동편 위쪽에 있는 면이란 뜻임.
<p>大甘里 (대감리)</p>	<p>○고려때 甘勿也鄉(감물야향)이었고 조선초기 까지도 甘勿也村(감물야촌)이라고 하였다. 달무리 마을이라는 뜻일 것임.</p>
<p>梅里 (매리)</p>	<p>○뒷산에 매화꽃이 땅에 떨어지는 모양의 명당이 있기 때문에 매리라고 하며, 1914년 상매리, 하매리를 병합하였다.</p>
<p>甘露里 (감로리)</p>	<p>○감로진은 양산시 원동면 원동리로 건너가는 낙동강의 나루터였다.</p>
<p>余次里 (여차리)</p>	<p>○옛날 나룻배가 닿는곳 이었다. 예종때에 경상도지리지에 여차리라고 나오며, 도기소(陶器所)가 있었다.</p>
<p>右溪里 (우계리)</p>	<p>○대포천의 상류 시냇가에 있는 마을이며, 조선후기까지 수어창(守禦倉), 지소(紙所) 등이 여기에 있었다.</p>
<p>墨方里 (묵방리)</p>	<p>○신어산의 뒤쪽에 있고 마을이 어두우며, 또 풍수지리설에도 등불을 달아 놓은 모양(가등형)의 명당이 이곳에 있어 자손을 보전할 자리라고 하여 어두운 곳이므로 등불을 달았다는 뜻이다.</p>
<p>大同面 (대동면)</p>	<p>○ 연혁 및 명칭유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해부(金海府)의 동(東)편의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하동면(下東面)이라고 하여11개리가 있었는데, 1914년 월당리(月堂里)와 평촌리(平村里) 합하여 월촌리(月村里)로 하여 10개리가 되었다. - 1944년 10월1일 면명(面名)이 하등(下等)과 발음이 같으므로 대동면(大東面) 으로 개칭(改稱)하였다.
<p>水安里 (수안리)</p>	<p>○고려시대의 수다부곡(水多部曲)으로서 동국여지승람에도 부동(府東)15리 수다부곡(水多部曲)으로 적혀 있다. 서낙동강가에 있어 수안(水安)이라 불렀으며, 웃담의 동북쪽에 수안사(水安寺)가 있다. 풍수지리설에서 말하는 명산(名山)이 많은 마을이다.</p>
<p>酒中里 (주중리)</p>	<p>○주부동(酒府洞)의 중리(中里)로서 선유동(仙遊洞)이라고도 하였다. 임진왜란때 동수(洞首)가 주중(酒中)으로 고쳤다고 하며, 1914년 동리(酒東里) 일부를 합병하였다. 풍수지리설로 뒷산에 있는 황금 술통모양의 명당(明堂)은 마을이름의 유래(由來)가 되었다.</p>

행정구역	연혁 및 명칭 유래
<p>酒同里 (주동리)</p>	<p>○ 옛날 주부동(酒府洞)이며, 중리(中里)에 황금으로 만든 술통 모양의 명당(明堂)이 있기 때문이다. 일설(一說)에는 주부동(主簿洞)으로서 조식(曹植)이 주부(主簿) 벼슬을 하다가 이곳에 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부동(酒府洞)의 동쪽이므로 주동리(酒東里)라고 하다가 1914년 주동리(酒同里)로 고치고, 초정리(草亭里) 일부를 합병하였다.</p>
<p>禮安里 (예안리)</p>	<p>○ 시례리(詩禮里)라고 불렀는데, 속칭(俗稱) 시릿골은 시루골로서 시루처럼 생긴 시루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으며, 이것이 시랫골로 바뀐 것이다. 1914년 초정리(草亭里) 일부를 병합하고 예안리(禮安里)가 되었다.</p>
<p>草亭里 (초정리)</p>	<p>○ 옛날 초령원(草嶺院)이며, 대동면(大東面)의 중심지이다. 1914년 초정리(草亭里)가 되었다.</p>
<p>槐井里 (괴정리)</p>	<p>○ 옛날에는 괴정리(槐亭里)라고 했으며, 1914년 지라리(池羅里)를 합하여 괴정리(槐井里)가 되었다.</p>
<p>大甘里 (대감리)</p>	<p>○ 감나무골이며, 옛날에 감씨(甘氏) 노파가 뒷산에 감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생긴 이름이라고 한다. 그러나 감천(甘泉)이 있기 때문에 감내의 큰 마을이므로 대감(大甘)이라 한 듯하며, 1914년 대감리(大甘里)가 되었다.</p>
<p>德山里 (덕산리)</p>	<p>○ 덕산(德山) 아래에 있으며, 고려시대부터 덕산역(德山驛)이 있어 양산군(梁山郡)으로 가는 교통의 요지였다.</p>
<p>月村里 (월촌리)</p>	<p>○ 1914년 월당리(月堂里)와 평촌리(平村里)를 합하고 덕산리(德山里) 일부를 병합해서 월촌리(月村里)가 되었다. 1931~1933년의 낙동강일천식공사(洛東江一川式工事)를 할 때 낙동강 제방이 이곳으로부터 시작되었다.</p>
<p>鳥訥里 (조눌리)</p>	<p>○ 조눌(鳥訥)이라고도 하며, 새누리라고 부른다. 모래밭에 후조(候鳥)가 많이 날아왔는데 새의 울음소리가 더듬는 것 같다고 새놀이라고 했다는 설(說)도 있다. 서쪽에 있는 들은 대안반이라고 한다. 1914년 행정구역의 폐합에 따라 조눌리(鳥訥里)라고 하였다.</p>
<p>東上洞 (동상동)</p>	<p>○ 연 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95 (고종32년) : 김해군 김해면 중심지 - 1914. 3. 1 : 김해군 좌부면 동상리 - 1941.11. 1 : 김해군 김해읍 조일정 - 1947. 6.25 : 김해군 김해읍 동상동 (1.2구) - 1981. 7. 1 : 김해시 동상동 <p>○ 명칭유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래 김해군 좌부면 동쪽의 위에 있는 마을로 1941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성리와 부원동의 각 1부를 병합하여 동상리가 되었으며 1941년 11월 1일 동명을 조일정으로 바꾸었다가 1947년 6월 다시 동상동으로 동명이 복구되면서 2개구로 나누었으며 1981년 7월 1일 법률 제3425호에 의거 시 승격과 함께 법정동 관할구역이 현재의 행정동인 동상동이 되었음

행정구역	연혁 및 명칭 유래
<p>會峴洞 (회현동)</p>	<p>○ 연 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89년 우부면 회현리 (右部面 會賢理) - 1914년 우부면 회현리 (右部面 會峴理) - 1918년 金海面 會峴理 (우부면 ,좌부면 통합) - 1931년 김해읍 우부면 회현리(金海邑 右部面 會峴理) - 1981년 김해시 회현동 (金海市 會峴洞) <p>○ 명칭유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駕洛時代의 貞節女人인 女意의 이름 따서 여의고개라 불렀는데 이것이 여우고개로 바뀌어 狐峴 이라고 부르게 되고 다시 차자되어 한자로 회현이라고 부르게 됨 - 會峴의 會는 중심을 뜻하고 峴은 고개를 뜻하여 중심이 되는 고개 부근에 생성된 마을 이라 하여 會峴이라 칭한다고도 함.
<p>西上洞 (서상동)</p>	<p>○ 연 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시대 대기리(세종), 도화동(예종) - 1895년(고종32년) 金海郡 左部面 북내동(北內洞) - 1941년(日帝) 대화정(大和町)이라 改稱. - 1947년(해방후) 서상동(西上洞)이라 改稱 <p>○ 명칭유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해읍성 해체된 후 東上洞에서 서쪽으로 맞은편에 위치 하기 때문에 西上洞이라 稱함
<p>鳳凰洞 (봉황동)</p>	<p>○ 연 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95년(고종32년) 金海郡 右部面 會峴里 - 1941년(日帝) 봉황정(鳳凰町) - 1947년(해방후) 鳳凰洞으로 改稱 <p>○ 명칭유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海地理志에 보면 金海府城의 서쪽에 鳳凰이 날개를 펼친 모양의 독뢰가 있으니 조선 高宗 초에 부사 정현석이 臺를 쌓고 鳳凰臺라고 稱함.
<p>府院洞 (부원동)</p>	<p>○ 연 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해부(金海府)의 청사가 있었던 곳이며, 1914년 다전리(茶田里). 강창리(江倉里). 고서리(古西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부원리(府院里)가 되었고 - 1941. 11. 1 영정(榮町)으로 고친 것을 1947. 6월 부원동으로 개칭함. <p>○ 명칭유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원동은 1981년 김해읍이 김해시로 승격되어 김해군으로 부터 독립하면서 행정동으로 설치되었다. 법정동 부원동이 이에 속해 있다.

행정구역	연혁 및 명칭 유래
<p>內外洞 (내외동)</p>	<p>○ 연 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95년 : 김해군 우부면 내리, 외리 - 1914년 : 김해군 우부면 내동리, 외동리 - 1919년 7월 : 김해군 김해면 내리, 외리 - 1931년 11월 1일 : 김해군 김해면 내리, 외리 - 1947년 6월 25일 : 김해군 김해읍 내동, 외동 - 1981년 7월 1일 : 김해시 내외동 <p>○ 명칭유래</p> <p>- 내외동은 경운산 기슭을 중심으로 북쪽 마을을 내리, 바깥쪽 마을을 외리로 불러 오다 1914년 내리를 내동리, 외리는 봉곡리와 병합하여 외동리로 불러 왔으며 1931년 김해면이 김해읍으로 승격되면서 다시 내리와 외리로 법정리 명칭이 부여되었으며 1947년에는 내동과 외동으로 개칭되어 오다 1981년 7월 1일 김해읍이 김해시로 승격되면서 행정동으로 내외동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p>
<p>內 洞 (내 동)</p>	<p>○ 연 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95년 : 김해군 우부면 내리 - 1914년 : 김해군 우부면 내동리 - 1919년 7월 : 김해군 김해면 내리 - 1931년 11월 1일 : 김해군 김해면 내리 - 1947년 6월 25일 : 김해군 김해읍 내동 - 1981년 7월 1일 : 김해시 내동 <p>○ 명칭유래</p> <p>- 경운산 기슭을 중심으로 북쪽 마을을 내리라 불렀음</p>
<p>外 洞 (외 동)</p>	<p>○ 연 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95년 : 김해군 우부면 외리 - 1914년 : 김해군 우부면 외동리(병곡리와 병합) - 1919년 7월 : 김해군 김해면 외리 - 1931년 11월 1일 : 김해군 김해면 외리 - 1947년 6월 25일 : 김해군 김해읍 외동 - 1981년 7월 1일 : 김해시 외동 <p>○ 명칭유래</p> <p>- 옛날 거인리로 경운산 기슭을 중심으로 바깥쪽 마을을 외리로 불렀음</p>

행정구역	연혁 및 명칭 유래
<p>大成洞 (대성동)</p>	<p>○연 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시대 : 향교(鄕校) - 조선시대 : 교동(校洞) - 일제시대 : 北外里+三山里=畚谷里→大成町(1941년) - 대한민국 : 大成洞(1947년) <p>○명칭유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교의 대성전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대성동이라 함
<p>龜山洞 (구산동)</p>	<p>○연 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시대 : 三山理(睿宗地理地) - 일제시대 : 龜山町(1941년) - 대한민국 : 龜山洞(1947년6월) <p>○명칭유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종때 지리지의 삼산리 에서 유래된 지명
<p>三溪洞 (삼계동)</p>	<p>○연 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 北谷里 - 일제시대 : 三溪洞(1914년) <p>○명칭유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부면의 삼거리로서 세갈래 길이 있다하여 1914년 삼계동으로 고침
<p>七山西部洞 (칠산서부동)</p>	<p>○ 연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해부 23면의 하나인 칠산면으로 1914년 우부면으로 통합 - 1918년 우부, 좌부의 두 면을 합하여 김해면으로 통합 - 1931년 11월 1일 김해읍으로 승격 - 1947년 6월25일 서부출장소 설치(풍유동,이동,명법동) - 1981년 김해읍이 김해시로 승격됨에 따라 칠산동으로 명명 - 1998년 9월12일 칠산동과 서부동이 통합 <p>○ 명칭유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9월12일 칠산동과 서부동이 통합됨으로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칠산과 서부를 합쳤다는 의미로 칠산서부동으로 명명함.
<p>豊留洞 (풍류동)</p>	<p>○ 명칭유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옛날 풍류리이며, 칠산의 북쪽에 위치하여 바람이 세계 불어오기 때문에 생긴 지명인 듯하다. - 일설에는 가락국시대의 놀이터가 있어 풍류(風流)를 즐겼다고 해서 생긴 이름이라고도 한다. - 1947년 6월 바람에 날리는 것을 풍족하게 머물라고 풍유동(豊留洞)으로 고쳤다

행정구역	연혁 및 명칭 유래
<p>明法洞 (명법동)</p>	<p>○ 명칭유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옛날 칠산면의 성법리,대법리,음법리였다가 우부면 음법리가 되었다. - 1947년 6월 음법을 버리고 명법동으로 개칭하고 2구로 나누었다. - 음법,대법,성법 등의 지명을 보면 법당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인 듯하다. - 1981년 시승격과 함께 칠산동에 들어가고 2통으로 나뉘었다.
<p>花木洞 (화목동)</p>	<p>○ 명칭유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 가운데 있는 우물가에 큰 백일홍 고목이 서 있었기 때문에 꽃나무 샘이라 부르고, 이 때문에 화목리가 되었다.
<p>二洞 (이동)</p>	<p>○ 명칭유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산의 가장 남서쪽에 있는 마을로서 一洞과 二洞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 우부면(右部面)의 이동리가 되었다가 1947년 6월 이동으로 고치고 2구로 나누었다. - 1981년 7월 시승격과 함께 칠산동에 들어가 3통으로 나누었다.
<p>江洞 (강동)</p>	<p>○ 명칭유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반천(海畔川)가에 있는 강창포(江倉浦)였다. - 강창리에서 1947년 6월 강동으로 개칭되었다. - 1981년 시승격과 함께 서부동에 편입되고 2통으로 나뉘었다. - 2005년 강동2통을 강동1통으로 편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p>興洞 (흥동)</p>	<p>○ 명칭유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호산(林虎山-流民山,加助山)의 남쪽에 있으며, 흥부암(興府庵), 흥복원(興福院) 등이 있었다. - 1914년 화목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우부면 흥동리가 되었다가 1947년 6월 흥동으로 고쳐 4구로 나누었다. - 1981년 시승격과 함께 서부동에 들어가고 4통을 두었다.
<p>田下洞 (전하동)</p>	<p>○ 명칭유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부면 전하리인데, 1914년 좌부면 강창리의 일부를 병합하였다. - 1947년 6월 전하동으로 개칭하고 2구로 나누었다. - 밭 아래라는 뜻으로 밭 아래라 부르며, 해반천과 봉곡천가에 좋은 전답이 있기 때문이다. - 1981년 7월 시승격과 함께 서부동에 들어가고 3통으로 나누었다.

행정구역	연혁 및 명칭 유래
<p>活川洞 (활천동)</p>	<p>○ 연 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06년(광무10년) : 김해부 좌부 활천면 남역리 - 1914년 : 김해부 좌부 활천면을 좌부면으로 합병, 좌부면 남역리 일부를 병합하여 좌부면 어방리로 되었음 - 1918년 : 김해부 좌부 활천면이 김해면으로 합병 - 1947년 6월 : 김해군 김해읍 남역리가 삼정동으로, 어방리가 어방동으로 개칭 - 1981년 7월 : 김해시 승격으로 삼정동과 어방동이 합하여 활천동이 되었음.
<p>三政洞 (삼정동)</p>	<p>○ 연 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06년(광무10년) : 김해부 좌부 활천면 남역리 - 1914년 : 김해부 좌부 활천면을 좌부면으로 합병, 좌부면 남역리 일부를 병합하여 좌부면 어방리로 되었음 - 1918년 : 김해부 좌부 활천면이 김해면으로 합병 - 1947년 6월 : 김해군 김해읍 남역리가 삼정동으로, 어방리가 어방동으로 개칭 <p>○ 명칭유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 사람의 정승(政丞)이 나올 삼정곡(三政谷)이 있었기 때문에 유래된 명칭임
<p>漁防洞 (어방동)</p>	<p>○ 명칭유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옛날 신어산 영구암(永久庵)에서 조선대까지 배를 타고 갈 때 길목에 있었던 마을로서, 수도(修道)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길가이므로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방(防)을 붙였다 해서 유래되었음
<p>三安洞 (삼안동)</p>	<p>○ 연 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7년 : 김해군 좌부면 माम리와 삼방리가 각각 안동과 삼방동으로 개칭 - 1981년 : 김해시 승격과 더불어 삼방동과 안동을 합하여 행정동 삼안동이 되었음
<p>三芳洞 (삼방동)</p>	<p>○ 연 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해군 활천면에 속한 지역으로, 삼강 또는 삼방이라 하였다가 -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좌부면 삼방리가 됨 - 1918년 김해면에 편입 - 1931년 김해면 김해읍으로 승격하여 김해읍 삼방리가 됨 - 1947년 리가 동으로 바뀌어 김해읍 삼방동으로 됨 - 1981년 7월 김해읍이 시로 승격함에 따라 김해시 삼방동이 됨 <p>○ 명칭유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방이란 유래는 임진왜란때 아버지 , 아들, 며느리가 화를 당하여 충신, 효자, 열녀가 동시에 생겼다는 데서 삼강(三綱)의 꽃다운 인물이 배출되었다고 삼방(三芳)이라 함

행정구역	연혁 및 명칭 유래
<p>安洞 (안동)</p>	<p>○ 연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해군 활천면에 속하였으며 말이 많아 마마리(馬麻里) 또는 말맛이라 함 -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좌부면 마마리가 되었으며, - 1918년 김해면에 편입 - 1931년 김해면이 읍으로 승격함에 따라 김해읍 마마리가 되었다 - 1947년 6월 마마리가 안동으로 바뀌었으며 - 1981년 7월 김해읍이 심해시로 승격함에 따라 김해시 안동이 됨 <p>○ 명칭유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동이라는 지명의 유래는 옛날 역마를 매던 곳이라 하여 말맛(馬麻 또는 馬場의 뜻)이라 불리웠음 - 마마리에서 '마마'란 이름이 천연두를 떠올리게 되어 이름이 좋지 못하다 하여 안동으로 개칭됨
<p>池內洞 (지내동)</p>	<p>○ 연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부면 지내리였다가 1947년 6월 지내동이 되었다. 그때 2구로 나누었는데 1981년 7월 시승격과 함께 불암동에 들어가 6통으로 나누어졌다. <p>○ 명칭유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앞에 연못이 있다하여 지내(池內) 또는 못안마을이라 불리어졌으며, 그 못은 98년도에 배립되어 지금은 빈 공지로 되어 있음
<p>佛岩洞 (불암동)</p>	<p>○ 연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천면 불암리인데 仙岩이라고도 했다. 1914년 가락면 식만리와 하동면 수안리 각 1부를 병합하고 左部면 불암리가 되었다.1947년 6월 불암동으로 개칭하여 3구로 되었다가 1981년 시승격과 함께 지내동을 합하여 행정상으로 불암동이 되어 6통으로 나누었다. <p>○ 명칭유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해와 부산의 경계인 서낙동강변의 신어산 끝자락에 부처 바위가 있었다 하여 불암동으로 불리어졌으나 남해고속도로 건설시 훼손되어 지금은 그 자취를 알 수 없음